

대전전국위원장단 연설

감사합니다. (박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포부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소박한 꿈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더불어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항상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우 자신에 넘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충청도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자, 나는 우리의 결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와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10시 넘어서 부산서 출발했는데 대구에서 불일 한참 보고 그리고 대전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근방에 어디 충청도 한가운데 행정수도가 있으면 전국의 국민들이 2시간 안에 그냥 불일 보고 밥 먹고 그리고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시민들이 대전~진주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남해안에 회 잠수시러 다녀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한 중심에 우리의 행정수도가 서있게 될 때 저는 충청도에 계도 축복이지만 전국의 지방사람들에게 모두가 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어떻게 믿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지만 믿어주셔야지요. 그리고서 못지킬 약속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조심 약속합니다. 저는 못지킬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단 한번도 착오없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수)

표현을 그렇게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이 제게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만나서는 안될 사람이 만나자, 한번해서 만나면 안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하는데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는 것을 우리는 화합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김원웅의원입니다. (박수) 왜 라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긴 역사가 있고 하로동선의 같은 주주였습니다. 어찌다 아는 사연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 데 대한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후보입니다. 한(?) 최소 국민들이 뽑아주셨다고 국민후보라고 이름달고 다니는데요. 저 송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있는 일이라 그냥 국민후보 이렇게 달고 다니겠습니다. (박수) 이회창 후보는 아무리 당이 커도 한 당의 후보이지만 저는 지금 저를 지지해 주시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저를 지지후보로 선택한 정당이 3개 아닙니까? (박수) 제가 보통 대통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자꾸만 지역감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쇠신 반DJ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후보는 접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고 접니다. 우리가 이기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저 노무현입니다. (박수) 노무현이 대통령되면 그 정권은 노무현정권입니다. (박수)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재창출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고 민주당을 대통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은 민주당입니다.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이제 낡은 정치를 청산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겠습니다. (박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선에 나갔을 때 제게 계보가 있었습니까? 측근도 가신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또 그런 후보가 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가 되었습니다. 국민경선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국민후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가 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박수)

경선 이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순간에 이르렀을 때 국민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국민후보 지키기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만에 7억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그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있었고 그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이 저를 다시 되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통령이 될 길은 아득해 보였는데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국민들의 압력이 단일화하라 단일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한 배경이 다른데 지금 내놓은 정책도 다른데 어떻게 단일화하란 말이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아!' 정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치가 더 중요하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서민정책도 있고 부자정책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정치부터 새롭게 하라 그런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단일화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손잡고 우리는 하나의 후보를 가지고 정치를 위해서 넓은 정치에 의존하고 있고 수구세력을 물리치자. 그리고 새로운 정치와 함께 결단했고 그리고 국민들은 저를 단일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돈까지 모아주십니다. 돈 없어서 어떻게 정치할까 어떻게 선거할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기탁금이 5억이 어디서 나올지 조차도 걱정했습니다. 이제 기탁금 치르고도 돈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빚진 후보입니다. 이제 재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은 돈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게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주신 우리 보통의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빚 갚겠습니다. (박수)

의혹이 없는 유일한 대통령후보로서 저는 몇몇한 후보라고 자랑합니다. 고소 고발당하고 국정조사하자 특검제하자 이런 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의혹이 없는 몇몇한 대통령후보입니다. 제가 대통령되면 이제 분열의 대통령이 아니라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정치는 안정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저런 의혹에 시달려서, 세풍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기업으로부터 돈을 10억 받았던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가예산을 끌어다가 써버린 이 정당에 대해서는 장물 환수소송을 물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정치의 주제가 되었을 때 국회의사당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국회의사당이 그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이 되겠습니까? 민생을 거론하는 민생의 장이 되겠습니까? 정치는 끊임없이 시끄럽고 표류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괴로울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따라서 사회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될 것입니다.

다시 IMF위기가 올 수 있다고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시장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 시스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IMF가 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과 외국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IMF가 오는 것이고 제도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IMF 안오는 것입니다. (박수)

정권교체를 얘기합니다. 부패정권심판을 얘기합니다. 누가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부패와 관계없는 정당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예산까지 마구 끌어다가 선거에 써버린 그야 말로 부정부패의 정당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부정부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후보 스스로가 부정부패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의혹이지 그게 의혹입니까? 사기지 않습니까? (박수) 부패정권심판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부패 청산(?)으로써 출발합니다.

한국에는, 우리에게는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지방이 잘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방을 사랑하고 지방출신인 후보는 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충청권수도를 충청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이 잘사는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이제 충청도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전 지방이 함께 다 잘사는 새로운 시대를 꼭 열어나가겠습니다. (박수) 특권이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차별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누구나 땀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시대, 그야 말로 우리 보통사람들이 당당히 대접받고 떳떳하게 사는 새로운 민주주의시대 새로운 우리 보통사람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십시오. 여러분 12월19일 우리 승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